

## 문법화의 한 양상에 대하여

최형용 \*

# 1

언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모습과 기능을 바꾸는 일이 있다. 이러한 언어의 통시적 변화를 하나의 기제로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문법화(grammaticalization)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언어의 공시적 기술을 통해 언어능력을 설명해 내는 것을 문법의 이상으로 생각하는 현대언어학의 흐름이 문법의 이상으로 확고히 자리매김되면서 상대적으로 언어의 통시적인 측면에 대한 논의는 기술 이상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법화는 통시성을 중시한 개념으로 그 나름의 기제를 가지고 해당 언어가 보여 주는 통시적 사실에 기반하여 기술 이상의 '설명'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문법화가 그에 상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역시 하나의 기술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주게 된 것은 이를 단순히

---

\* 박사과정

결과물에 대한 정적 해석에만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동적인 문법화는 흔히 ‘어휘적 의미를 가지고 있던 실사류가 문법적 의미를 가지는 허사류로 바뀌는 사적 변화’로 정의되며 이러한 정의는 보통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표현된다.

(1) 의미약화>의미소실>문법기능획득>문법기능의 전이

그러나 이는 문법화를 지극히 수동적으로 그리고 협소하게 파악한 것이다. 문법화가 본질적으로 통시성을 고려한 개념이고 그것이 언어의 점진적 변화를 전제한다는 점만을 염두에 두더라도 우선 어휘적 의미를 가지고 있던 실사류가 아직 허사류로 바뀌지 않은 단계와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던 허사류가 문법성을 상실하는 단계가 아울러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법화는 하나의 단어에만 그치는 형태적 개념이 아니다. 문법화를 능동적으로 생각한다면 단어 외에도 범주적인 측면을 고려해 더 넣을 수 있다.<sup>1)</sup> 이러한 고려는 문법화라는 개념에 단순한 기술의 능력 이외에 설명력과 예측력 등을 불어넣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라면 문법화는 ‘어휘적 의미를 가지고 있던 실사류가 문법적 의미를 가지는 허사류로 바뀌는 사적 변화’라는 정의를 발전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형태적인 측면과 범주적인 측면에서 문법화에 대한 몇 가지 소견을 제시해 보려는데에 목적이 있다.

## 2

본고의 논의를 위해 먼저 Bybee et al.(1994:9-26)에서 제시된 바 있는 문법화 이론의 가설들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1) 가령 의미론적 관심사가 통사론적 관심사로 되었다든지 통사론적 관심사가 형태론적 관심사로 된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이러한 변화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범주 차원의 문제가 된다.

- (2) ㄱ. 근원결정(source determination) 가설
- ㄴ. 단일방향성(unidirectionality) 가설
  - ㄷ. 보편적 경로(universal paths) 가설
  - ㄹ. 이전 의미의 유지(retention of earlier meaning) 가설
  - ㅁ. 의미 유지의 결과(consequences of semantic retention) 가설
  - ㅂ. 의미적 축소와 음운의 축소(semantic reduction and phonological reduction) 가설
  - ㅅ. 층별화(layering) 가설
  - ㅇ. 관여성(relevance) 가설

(2ㄱ)은 문법화의 입력이 되는 구성의 의미가 문법화의 진행 과정 및 그 결과 만들어지는 문법적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이 지닌 문제점은 먼저 하나의 근원 개념이 둘 이상의 문법범주를 놓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법 의미의 원천이 되는 것은 단순히 해당 요소가 지닌 어휘적 의미가 아니라 그 요소를 포함한 전체 구성임을 염두에 둘 때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가령 동일한 동사에서 서로 다른 문법범주가 생겨난 경우에는 그것을 포함한 구성이 달랐기 때문임을 증거로 제시하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동일한 기원으로부터 복수의 문법적 의미가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문제 가 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문법 의미들이 하나의 문법화 경로에 속하는 상이한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2ㄴ)은 문법화의 변화의 방향이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것으로 이에 의하면 문법 요소의 발생은 더 특정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로부터 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로 실체가 진화하는 것이라고 보게 된다. 이는 의미 변화뿐 아니라 문법적 변화, 음운론적 변화에도 해당되는 것이어서 털락이나 축약에 의해 문법형태소가 일단 축소되면 이들이 나중에 다시 본래의 더 온전한 형식을 회복하게 되는 일은 없다고 본다.

(2ㄷ)은 (2ㄱ, ㄴ)의 근원 결정 가설과 일방향성 가설을 함께 고려할 때, 동일한 근원 의미로 출발한 문법화는 동일한 경로를 거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즉 문법화의 입력이 되는 근원 요소가 범언어적으로 비슷하다고 할 때, 문법 의미의 발달에 있어 범언어적으로 유사한 보편적 경로가 존재하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2ㄹ)은 문법화가 이루어진 뒤에도 근원 구성의 특정한 어휘 의미가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2ㅁ)은 문법 요소는 기본적으로는 순수히 관계적인 기능을 갖는 것이지만 이전 어휘 의미의 혼적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 유지의 결과로 하나의 문법 요소가 여러 가지 다양한 용법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이들 다양한 용법에 대해 하나의 공통적, 추상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식의 연구는 별로 가치가 없고 그 대신 문법 요소의 다양한 용법을 통시적인 연쇄로 파악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2ㅂ)은 문법 요소의 의미론적 진화가 일반화 또는 의미의 축소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고 할 때, 이 의미의 축소가 음성적 축소와 평행하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2ㅅ)은 하나의 언어에서 하나의 문법 범주가 둘 이상의 문법 요소에 의해 실현되는 경우가 있을 때 이는 상이한 나이와 근원을 가진 복수의 구성이 문법화의 과정 속에서 그 영역이 중복되어 분점되거나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즉 문법화가 여러 층을 두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결과 만들어지는 문법 요소들은 서로 대립하면서 질서정연한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2ㅇ)의 관여성<sup>2)</sup>은 문법 범주의 의미가 이것과 연결된 어휘적 어간의 내재적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접사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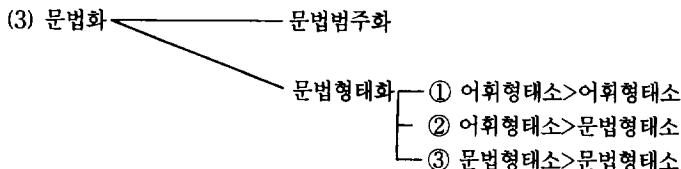
필자는 拂稿(1997)의 제3장에서 (2)의 여러 가설들에 대해 그 나름의 견해를 제시한 바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언급해 보기로 한다. 우선 (2ㄴ)의 '일방향성 가설'을 확대하면 현재 존재하는 모든 문법 요소는 필연적으로 어휘적 근원으로부터의 진화의 결과라는 말이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가령 국어

2) 이는 특히 Bybee(1985)를 염두에 둔 것으로 주어진 뜻이 어떤 범주로 표현되는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이 관여성 외에도 일반성(generality), 의미 변화(semantic change)가 더 제시되어 있다. 전상범(1995:611-622)에서는 Bybee(1985)의 이같은 요인들에 근거한 그녀의 이론을 '형태론의 의미론'이라는 제목으로 다루고 있다.

의 경우 주격조사 ‘가’와 같은 것은 물론이고 보조사 ‘은’이나 ‘도’도 어휘적 근원을 가진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견해를 취하지 않았다. 즉 어휘 요소가 문법 요소로 발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단일방향성 가설에 위배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통해 현재의 문법 요소가 모두 어휘적 근원을 가진 것이고 앞으로의 문법화 연구는 그러한 어휘적 근원의 발견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식의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필자에게 있어서 (2-1)은 가능한 어휘적 근원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모든 문법형태소의 근원이 어휘형태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문법형태소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단일방향성을 확대해석하지 않는다는 것 이외에는 (2)의 가설들이 필자에게도 매우 유용하다. 이상의 가설을 흔히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로 불리는 ‘-시-’에 대해 적용해 보기로 한다. 만약 이것이 그 동안 주장되어온 바대로 존재동사 ‘이시-’에서 문법화된 결과라면 (2-1)의 가설에 의하여 ‘이시-’가 존재하는 한 ‘높임’의 의미가 발견되어야 하며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2-2)에 의해 ‘-시-’에도 ‘이시-’의 의미가 흔적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시-’에 대한 논의는 이 가운데 어느 것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이 제시되지 않는 한 ‘-시-’를 ‘이시-’로부터의 문법화로 간주하려는 견해는 ‘이시-’의 이형태인 ‘시-’와의 형식적 유사성만을 고려한 ‘추정’이라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국어 보조사 ‘조차’나 ‘부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각각 동사 ‘좇다’와 ‘붙다’의 활용형이 문법형태화한 것인데 이전 단계에서 각각 동사로서 ‘兼하다’와 ‘비롯하다’의 의미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와 관련하여 필자는 *拙稿(1997:54)*에서 문법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한 바 있다.



우선 (3)에서 문법범주화는 전술한 바와 같이 문법화가 범주적인 차원도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으로 (3)에서 문법형태화의 ①은 기준 時點에서도 여전히 어휘형태소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전보다 의미의 축소(분포의 축소<sup>3)</sup>) 혹은 의미의 분화를 겪은 것을 의미한다. ②는 그 동안 문법형태화의 전형적인 경우로 다루어진 것으로 기준 時點에서 어휘형태소가 문법형태소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은 ①의 경우와 평행하게 문법형태소가 기준 時點에서 그 이전의 경우보다 문법기능의 축소(분포의 축소)와 문법기능의 분화를 겪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3)의 문법형태화는 (2ㄴ)에서 제시한 문법화의 방향성을 아울러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문법화를 (3)과 같이 제시한 것은 특히 문법형태화에서 중간단계의 포착을 고려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것이 문법범주화와 문법형태화가 별개의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문법범주화는 문법형태화를 필수적으로 수반한다는 점에서 둘은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 아래에 놓여 있다. 본고에서는 이상과 같이 확대된 능동적 문법화 개념을 바탕으로 拙稿(1997)에서 미진했던 문법형태화의 양상을 근대국어와 관련하여 살펴보고 拙稿(1997)에서 다루지 못했던 문법범주화의 일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2.1. 본고에서 살펴볼 문법형태화의 기준 시점은 현대국어이다. 이를 근대국어와 관련하여 (3)에 제시한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3①)은 의미의 축소 즉 분포의 축소나 의미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여기에는 '길, 탓, 짓, 넌, 놈, 지경, 노릇' 등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를 가운데 '노릇'의 경우를 대표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은 '노릇'의 경우가 현대국어와는 달리 중세국어에서 자립명사로서의 용법을 보이는 것으로 간주되는 예이다.

#### (4) 菩薩이 노릇과 우승과 어린眷屬을 여회오<釋詳13:22>

- 3) 어떤 어휘형태소가 문법형태소로 문법화되었다고 할 때 ㄴ 형태소는 자신의 특수한 어휘적 의미를 잃어 버리는 대신 분포상으로는 그 어휘적 의미에 따른 제약이 없어지게 되어 분포의 확대를 겪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는 문법범주화를 전제로 한 문법형태화를 논의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다. 의존명사, 보조사, 접미사를 염두에 둔 경우에는 그들이 문법화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문법범주화를 반드시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분포의 축소'가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노르스로 霜威를 비러 山簡을 뵈아노니(戲假霜威促山簡)<杜謙22:8>

이 때의 ‘노릇’은 현대국어 ‘놀이’의 의미로 현대국어 ‘선생노릇’의 ‘노릇’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다음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7세기에도 ‘놀이’의 의미를 가지는 ‘노릇’은 자립적으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7세기에는 ‘놀이’의 의미 외에 ‘선생노릇’의 ‘노릇’과 같은 예는 보이지 않는다.

- (5) 노릇 헌던 그 놈들히 노의여 혼나토 고수호리 업서<老謙下:50>  
노릇 즐기다(好耍子)<譯類(1690) 下:24>
- (6) 또 여러 가지 노릇 헌며 환술 낙이눈 이도 이셔<朴新謙2:12>  
성쓰고 노릇 헌더니<小兒論(改刊本1777) 1>  
노릇 아니하고 그저 안잣거늘<小兒論(改刊本1777) 1>
- (7) 부인애 이시매 너인애 노릇 혼미 방해롭디 아니하고<念佛(興律寺版1704) 8>  
일가를 경호여 주인 노릇 혼고<女謙16>  
通番話 통수 노릇 혼다<同類上:24>  
쇼론 노르술<闡義昭鑑謙解4:60>  
여기 獸醫 노릇 혼는 사룹이 있느냐<朴新謙1:41>  
cf. 겨우 즘싱 고티는 집이 있느냐<朴謙上:38>

(5)는 17세기에 ‘놀이’의 의미로 쓰인 ‘노릇’의 예를 보인 것이고 (6)은 이러한 의미가 18세기에도 유지되어 있음을 보인 것이다. (7)은 18세기에 들어 ‘노릇’이 ‘놀이’의 의미보다 ‘선생노릇’의 ‘노릇’의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로 들어 놓은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즈싱 고티는 집’이 ‘獸醫 노릇 혼는 사룹’으로 바뀐 경우를 통해 ‘놀이’의 의미가 ‘선생노릇’의 ‘노릇’으로 쓰인 것을 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가 점차 ‘놀이’의 의미를 상대적으로 소멸시켜 현대국어 ‘노릇’에는 ‘놀이’의 의미를 찾아 볼 수 없게 된다.

현대국어에서의 ‘노릇’은 자립성 측면에서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어휘 형태소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현대국어의 ‘노릇’이 이번에는 ‘구설’의 의미 외에도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뜻 밖에 벌어진 ‘일’이나 ‘현상’”의 의미로 ‘한심한 노릇’, ‘기가 찰 노릇’ 등의 쓰임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러한 쓰임을 중시하여 이 때의 ‘노릇’을 의존명사로 간주하는 경우

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노릇’이 현재는 문법형태화의 ①에 해당 하지만 앞으로 멀지 않은 시기에는 엄연한 의존명사<sup>4)</sup>로 간주되어 문법형태화의 ②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2.2. (3)의 ②는 전술한 바와 같이 그 동안 문법형태화의 전형적인 경우로 다루어진 것으로 현대국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는 어휘형태소였던 것이 문법형태소로 완전히 바뀐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이러한 예로 먼저 중세국어의 자립명사가 의존명사<sup>5)</sup>로 완전히 굳어진 ‘리’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sup>6)</sup>

(8) 알피 決斷호야 이 見이 업다 호미 호마 理에 맛디 몰흘씨(前에 斷爲無是見者 | 既不中理흘식)<楞嚴 2:46>

호다가 이 介中에 사르문 理를 다으디 아니호니 업스며(若介中人은 無理不窮히며)<金 3:48>

말숨이 理에 當터 아니호면 치해 반드시 조츠리나<女諺3:18>

먼 곳으로서 온 손이니 理를 혜아리면<淸老(改刊本1765) 4:3>

즈못 리에 잣갑지 아닌<明諺 卷首 1:45>

(9) 쉬운 일부터 비화셔 우후로 노픈 리에 통달흘 거시니라(下學而上達也 | 리라)<諺 4:5>

(10) 내 지아비로 더브려 험과 주글 쟈르미니 엇디 너를 조출 리 이시리오<東新續 8:8>

(8)은 ‘리’가 자립적인 용법을 보이는 경우이다. 자립명사도 관형구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현대국어와 같은 용법을 기대할 수 있으나 15세기에는 ‘리’가 현대국어와 같은 관형구성에 참가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 (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립명사로서의 ‘리’는 18세기까지도 그 쓰임이 발견된다. (9)의 경우는 ‘리’가 외형상으로 의존명사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역시 현대국어에서는 가능

4)拙稿(1997)에서는 ‘의존명사’ 대신 ‘형식명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문법학에서는 특히 자립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형식명사’ 대신 ‘의존명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5) 의존명사가 어휘형태소인지 아니면 문법형태소인지는 사실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의존명사가 자립명사에 비해 문법성을 중요한 특징으로 삼는다는 점을 중시하여 논의의 편의상 의존명사를 문법형태소로 간주하기로 한다.

6) 이 밖에 ‘띠름, 양, 즈음, 체’ 등도 같은 맥락에서 다를 수 있다.

하지 않은 구성을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해 (10)은 현대국어의 의존명사 ‘리’와 쓰임이나 의미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용법은 18세기 이후로 가면 지배적이다.

다음으로는 현대국어 ‘조차’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sup>7)</sup> 전술한 ‘리’가 자립 명사에서 의존명사로 발달한 것임에 비해 ‘조차’는 동사가 조사로 발달한 경우이다.

- (11) 運 果는 고고리예 스뭇 둘오 쓴 바곤 불휘 조차 빼니라(括果는 徹薄括하고 苦胡는 連根苦하니라)<金三 2:50>  
    흐물며 브렛 盗賊 하미 조초니 범르미 셀리 부로몰 特別히 警戒하라(況兼 水賊繁 鐵特戒風駛)<杜謙16:19>  
    톱 조초 갈 헤나(鋸兒刀子一箇)<麟朴上:16>  
    cf. 胡椒へ 그른 조차 범르고<麟朴上:68>
- (12) 그 근본을 傷하면 가지조차 업느니라<小謙3:1>  
    네조차 나를 소기는다<무덤편지(1571~1603) 187>  
    너를 상시 之이 업시 믿다니 네조차 소기고 가니<무덤편지(1571~1603) 187>
- (13) 큰 니근 석뉴 흉나흘 겁질조차 디허 동으로 흐르는 물 서되 브어 달혀<謙胎 21>  
    색디 아니커든 대롱에 물조차 너허 브티면<謙胎21>  
    貂鼠皮 수매조차 내브틴 갓오술 다가(貂鼠皮去袖)<朴謙下:1>
- (14) 것치 거문들 속조차 거문소냐<青丘418>  
    너조차 날을 꾀이니 그럴더 어디 이시리<한동록186>

(11)은 현대국어 보조사 ‘조차’로 발전한 동사 ‘좇다’의 중세국어 단계에서의 모습을 제시한 것이다. 우선 이 때 ‘좇다’의 의미는 전술한 바와 같이 현대국어 보조사 ‘조차’와 유사한 ‘겸(兼)하다’ 정도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현대국어 ‘좇다’에는 이러한 의미가 보이지 않는다. (11)의 첫 예문은 현대국어 보조사 ‘조차’와 비슷한 용법을 보이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예에서

7) ‘조차’와 동궤의 사실로 흔히 언급된 것은 ‘부터’이다. 그러나 ‘부터’는 이미 15세기에서도 보조사의 용법을 보이기 시작하여 16세기에는 보조사로서의 지위가 굳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연결어미나 관형사형어미와 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조초니’와 ‘조촌’이 동사의 활용형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11)의 첫 예문에서의 ‘조차’도 아직은 동사의 활용형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이러한 사정은 참고로 제시한 예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른 조차’의 경우 분포만으로 보았을 때는 보조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지만 같은 문헌의 ‘조촌’은 활용형이 분명하므로 역시 ‘그른 조차’의 ‘조차’도 활용형으로 간주될 성질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차’는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16세기 말기에서부터 조사로서의 모습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13)은 17세기의 예인데 이 때부터는 보조사로서의 지위가 굳어진 듯하다. 동사의 활용형으로 간주될 만한 예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이러한 추정에 대한 하나의 방증이 된다. 한편 (14)는 18세기의 예를 든 것인데 이러한 용법은 현대국어와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2.3. (3)의 ③은 (3①)의 경우와 평행하게 문법형태소가 현대국어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경우보다 문법기능의 축소(분포의 축소) 혹은 문법기능의 분화를 겪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전술한 바와 같이 ‘③문법형태소>문법형태소’의 경우는 ‘①어휘형태소>어휘형태소’와 함께 문법화에서는 거의 다루어진 경우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의 상정은 ‘②어휘형태소>문법형태소’의 경우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어휘형태소가 문법형태소로 변화하는 것은 어느 일순간의 일이 아니므로 문법형태소로 변하기 이전의 어휘형태소가 존재할 것이고 마찬가지 과정이 문법 형태소에 있어서도 상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8)</sup>

이렇게 현대국어를 기준으로 할 때 분포의 축소 혹은 의미의 변화를 겪어 (3

8) 이현희(1991:63)에서도 다음과 같은 것들을 문법화의 예로 들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문법형태소>문법형태소’의 경우로 간주될 수 있다.

- 1) 보문 구성의 어말어미화 : -을썩, -은바, -은지라, -을까(<-옳가), -은가, -을지, -은지, -을는지(<-을넌지, -을는지<-을런디<-으리런디), -은즉 등
- 2) 선어말어미 또는 그 둘 이상 통합체의 어말어미화 : -으니, -으리, -소, -으오 ; -니(<-늬), -디(<-듸), -네, -데 등
- 3)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의 통합체의 어말어미화 : -을손가(<-으리로손가), -나(<-는가), -누나(<-눈구나<-는고나), -옵니다, -습니다, -옵니까, -습니까, -읍시다 등
- 4) 어미와 조사의 통합체의 어말어미화 : -으매(<-오매), -으므로(<-오므로) 등

③)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대국어 의존명사 '줄'을 들 수 있다.

(15) 셀론 주를 니르니라<釋詳6:2>

긴 바잇 저주를 어느 줄로 소모 츠려뇨(長夜沾濕何由徹)<杜謡6:43>

조하 裸裸하고 불가 酒酒하니 어루 자를 주리 업도다(淨裸裸하고 赤酒酒  
하니 没可把 | 로다)<金三1:19>

(16) 님금 위<sup>호</sup>야 거상호미 일훔 어두려 호는 주리 아니라<東新續三2:84>

내 니부려 호는 주리 아니라(不是我自穿的)<老謡下:27>

(17) 孝와 敬은 어버이 섬기는 근본이니 공양흠이 어려운 줄이 아니라<女謡  
3:52>

도적인 주리 의심이 업순디라<續明謡1:2>

事理 當然<sup>호</sup>오되 우리 들은 아모란 줄도 모로눈더<隣語3:12>

스스로 넘치 업시 사랫는 줄 봇그럽더라<한동록189>

(18) 과거에 장원흘 줄로 명<sup>호</sup>시니라<龜君靈蹟誌20>

(19) 일이 있는 줄쓰지라도 알면서<독립신문2-87:1>

(15)~(18)의 예들은 '줄'이 중세국어에서도 현대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의존명사로 간주되지만 현대국어의 '줄'과는 달리 중세국어에서는 '것'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15)~(18)의 '줄'은 '어휘형태소' > '어휘형태소'나 '어휘형태소' > '문법형태소'의 과정과는 달리 '문법형태소' > '문법형태소'와 같은 단계가 문법화의 한 단계로 상정되어야 한다는 본고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된다.

(15)의 경우는 15세기 단계에 의존명사로 쓰인 '줄'의 경우를 든 것이다. 이들의 경우는 모두 '것'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16)은 17세기의 예를 보인 것인데 역시 '줄'이 '것'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17)은 '것'의 의미를 가지는 '줄'의 18세기의 예를 든 것이고 (18)은 19세기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현대국어에서는 '줄'에 이러한 의미가 파악되지 않는다.

한편 (19)는 '줄'이 현대국어와 비슷한 의미로 쓰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현대국어와는 다른 분포를 보여 주는 경우를 보인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대국어에서는 '줄'이 '까지라도'와 같은 조사결합체와 통합하지 않는다.<sup>9)</sup>

## 3

여기에서는 '-게 흐엿-'으로부터의 '-겠-'으로의 발전을 들어 (3)의 도식 가운데 문법범주화에 대해 언급해 보기로 한다.

3.1. 먼저 '-게 흐엿-' 구성의 '-엿-'은 '-어 잇-'의 문법범주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에 대해 개관해 보기로 한다. 그 동안의 논의를 통해 현대국어 선어말어미 '-었-'은 통사적 구성 '-어 잇-'이 문법화를 통해 형성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중세국어 단계에 존재하던 '-어 잇-'<sup>10)</sup>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대국어를 기준으로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 가지는 현대국어에 남아 있는 '-어 있-'으로 계승된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잇-'의 단계를 거쳐 현대국어의 '-었-'으로 발달한 것이 그것이다. 이것을 문법화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통사적 구성이었던 것이 선어말어미로 형성되어 새로운 문법범주를 탄생시킨 것이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어 잇-'의 '-었-'으로의 문법범주화는 그와 의미·기능 면에서 관련이 많았던 '-거/어/나-'나 '-더-'의 기능변화를 초래하였다.

'-아 잇-'과 '-아 이시-'가 각각의 내부에 개재하는 난어 경계가 소멸되어 '

9) '줄'과 비슷한 것으로 '도'를 더 들 수 있다.

- ㄱ. 이 法이 뵈도 몰혔며 너르도 몰හ리니<釋詳13:41>  
크 죄도 크도 아니하고<月釋1:26>
- ㄴ. 쌩르도 아니혔며 늦도 아니혔야<蒙法7>
- ㄴ. 仙翁의 헤율 일이 꽃 업도 아니혔디<松江13>  
우리는 수리 두루마리 겁도 세도 아네라<青丘40>

(ㄱ)의 15세기 예만으로는 '도'가 어간에 직접 결합하므로 이를 어미로 판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ㄴ)의 18세기의 예를 참조한다면 15세기의 '도'도 보조사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렇게 본다면 현대국어와는 달리 '도'가 그 이전에는 보다 넓은 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현대국어를 기준으로 할 때 '줄'과 마찬가지로 '도'를 문법형태화의 ③문법형태소>문법형태소'에 넣어 다를 수 있다.

10) 15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잇/이시-' 앞에는 '-아/어' 이외에도 '-오/우'(김완진 1982, 1986), '-거'(이승재 1992:171) 등의 부동사어미가 더 붙을 수 있었다.

앳-' , '-애시-' 를 거쳐 '-잇-' 과 '-아시-' 로 나타난 시기는 이미 15세기 말엽부터 여서 이 때부터 현대국어 '-었-' 의 의미를 엿볼 수 있다. 다음의 (22)가 그러한 예로 간주되는데 이를 통해 문법화의 결과로 어떤 문법형태소가 도출되었다고 할 때 그 형태소가 가지는 의미는 그 이전형에서 발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다. 앞서 현대국어 선어말어미 '-시-' 의 문제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한 바 있다.

- (20) 須達이 지비 도라와 빼 무든 웃 납고 시름호야 잇더니<釋詳6:27>  
모미 크게 드외야 虛空애 그득호야 잇다가 쏘 격과 드외며<釋詳6:34>
- (21) 二禪天에서 므리 나아 아래 그득호안다가 물도 업느니라<月釋1:49>
- (22) 軒檻에 내와둔 곳 가지는 이슬 가져 옷곳호잇도다<南明1:20>  
문조와 널오터 師는 繼이 부요물 得호야 겨시니 對答호터 호마 得호잇노이  
다<南明上:53>
- (23) 그 사르미 원 풀독에 살 마자 삼호잇고<蕭老 1:30>

(20)은 '-아 잇-' 의 15세기 단계를 보여주는 예이고 (21)은 (20)과 같은 구성에서 '-아 잇-' 의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가 점차 소멸되는 단계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단계는 (22), (23)과 같은 경우를 거쳐 16세기에는 어느 정도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대국어의 '-었-' 에 해당하는 형태가 굳어진 것은 다음의 '-게 호엿-' 을 참고할 때 17세기의 일이라 판단된다.

3.2. 이제 이를 바탕으로 '-게 호엿-' 의 문법범주화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무엇보다도 본고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대국어 '-겠-' 의 문법범주화를 살펴볼 때에도 '-었-'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기원적인 모습은 현대국어 '-겠-' 이 가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현대국어 '-겠-' 은 통사적 구성인 '-게 호엿-' 으로부터 문법범주화된 결과이지만 이 '-게 호엿-' 이 현대국어 '-겠-' 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진석(1971)은 '-게 호엿-' 을 사동 구문으로 해석하여 문면에 나타나지 않는 '그 동작주는 초인간적인 힘으로, 숙명론적인 세계관에서 과거형으로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임동훈(1996)은 '-게 호엿-' 이 역시 사동 구문에서 나온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게 되어 있-'

으로 해석된다고 하여 '-어 잇-'에 피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즉 '-어 잇-'이 가진 상태 지속의 의미 때문에 '-어 잇-' 앞에 오는 타동사는 그 동작주 의미역이 약화되어 피동적 해석을 받고, '-게 흐엿-'이 '-게 되어 잇-'의 의미를 따면서 '-게 흐-'의 동작주 주어는 실격되어 문면에 실현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sup>11)</sup>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와는 다른 시각을 취하고자 한다. 이는 (2)에 제기한 여러 가설들을 염두에 둔 결과이다. 무엇보다도 이를 문법화의 틀 안에서 이해하려고 한다면 사동 구문이 '-겠-'으로 발전되었다고 할 때 이 사동 구문에는 '-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고가 취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태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시 피동적인 것으로 해석되는 '-어 잇-'의 경우에 대해 언급해 보기로 하자.<sup>12)</sup>

(24) ㄱ. 네 이제 사르미 모물 得 흐고 부터를 맛나 있느니<釋詳6:11>

ㄴ. 自恣는 아래 사겨 있느니라<月釋21:4>

(24)는 '-게 흐엿-'이 사동 구문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에 해당하는 '-어 잇-'도 타동사와 결합한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들어본 것이다. (24) 가운데에는 (24-1)이 바로 피동적인 것으로 해석되는 '-어 잇-'의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중세국어 단계에 '-어 잇-'이 현대국어보다 한결 폭넓게 사용되어 (24)처럼 타동사에 연결된 경우가 매우 많았고 이 가운데는 (24-1)과 같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는 '-게 흐엿-'의 '-겠-'으로의 문법화를 설명하기 위해 '-게 흐엿-'에서의 '-어 잇-'이 피동적인 의미를 따겨 되었다는 식의 설명보다는 피동적 의미를 가지는 '-어 잇-'의 용법을 그렇지 않은 것과 대등한 것으로 따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기에 충분한 것 같다.

11) 이병기(1997:77)에서 재인용.

12) 예문은 박진호(1994)에서 가져온 것이다. 박진호(1994)에서 (24-1)을 내포문의 주어가 모문의 주어에 합류되는 것으로, (24-1)을 내포문의 복적이며 모문의 주어에 합류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24-1)과 같은 예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게 흐엿-’이 ‘-겠-’으로 문법화되었다고 말하고자 한다면 ‘-겠-’의 의미를 ‘-게 흐엿-’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어 잇-”이 가진 상태 지속의 의미 때문에 ‘-어 잇-’ 앞에 오는 타동사는 그 동작주 의미역이 약화되어 과동적 해석을 받고, ‘-게 흐엿-’이 ‘-게 되어 잇-’의 의미를 떠면서 ‘-게 흐-’의 동작주 주어는 실격되어 문면에 실현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식보다 이 때의 ‘-게 되어 잇-’의 의미가 ‘흐-’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가정을 더 선호하게 해준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이병기(1997:77~78)에서는 이미 중세국어에 ‘흐-’가 현대국어의 ‘되-’에 해당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어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sup>13)</sup>

이상의 논의에 또한 ‘-게 흐엿-’이 사동의 의미를 가지는 것과 ‘-게 되어 잇-’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분명히 구분된다는 사실도 추가되어야 할 것 같다.

- (25) 홀는 너희 블이 장춘 시묘막의 밑게 흐엿거늘<東新續三2:84>  
 아비 븐득 병을 어더 고절흐를 때 쇠게 흐엿더니<東新續三7:2>  
 祭예 참預티 아니케 흐엿꼬<家諺1:27>  
 舊儀에 손을 보디 아니흐며弔를 受~~하게~~ 흐엿더니<家諺1:29>  
 朝官의 오르디 아니면 열다스술 흐게 흐엿느니라<家諺7:28>  
 안죽 흔 신主만 容납~~하게~~ 흐엿다가<家諺7:33>  
 五오로 네 녁 벽의 니르러 희여곰 膜~~습~~게 흐엿다가<家諺8:13>  
 孟說의 집 祭儀에 二 至와 二 分늘 끄~~게~~ 흐엿거니와<家諺10:3>  
 時祭를 다 겪~~ト~~ 흔 날을 끄~~게~~ 흐엿더니<家諺10:4>

13) 이병기(1997:78)에서는 ‘되-’의 의미를 가지는 중세국어 ‘흐-’의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아랫 五根은 子細히 아니 널어도 흐리라<月釋17:59>  
 刺史의 眞實へ 符節을 구퇴여 는호디 아니흐야도 흐리로다(刺史眞符不必分)<杜諺6:35>  
 열 희에 어루 甲을 바사도 흐리니(十年可解甲)<杜諺10:23>

이병기(1997)은 이에 따라 ‘-게 되엇(드어야 잇)-’ 구성과 같은 의미를 가졌던 ‘-게 흐엿-’이 현대의 ‘-겠-’으로 문법화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는 본고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벽복녕 닷 낭도 녀케 흐엿느니<新教荒 補 9>

누선 잡사롬을 브리오디 못흐게 흐엿느니<老謠 1::43>

남斗 六星 돈은 민들기률 너모 두렷게 흐엿고<朴謠 1::18>

짐줏 이 글월을 세워 쓰게 흐엿느니<朴謠 1::54>

짐줏 이 글월을 세워 쓰게 흐엿느니<朴謠 1::10>

이 갓을 민들기률 알맛게 흐엿다<朴謠中:25>

(26) 혼 사롬이 산동의 피란호여 주려 죽께 흐엿더니<新教 補:14>

(27) 소연도 보고 부매 가서 나르면 더 됴끼 흐엿다<언간 74(1659년경)>

명디 온 것들 이 둥의 나온 필이 예서 너낳은 주게 흐엿습<언간

179(1726)>

(25)는 17세기에 나타나는 '-게 흐엿-'이 사동의 의미로 쓰인 것을 보인 것이다. 그 이전에는 '-게 흐엿-' 사동 구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데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어 잇-'의 문법화와 연관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체계적인 사동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어서 이 가운데 일부가 '-게 되어 잇-'의 의미를 가지게 되어 그것이 현대국어 '-겠-'으로 발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필자가 현대국어 '-겠-'의 의미를 가지는 '-게 흐엿-'의 구성의 예로 찾은 것은 (26)의 예 하나뿐이지만 이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임은 물론이다. 이미 '-게 흐엿-'을 사용한 사동이 굳어진 (25)의 예들이 같은 시기에 (26)과 같은 '-게 되어 있-'의 의미로 발달한 것이라면 (26)과 같은 예들이 17세기에 보다 폭넓게 나타났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27)과 같이 구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언간이 보고되기 이전에 그나마 '-게 되어 있-'의 의미를 가지는 구성은 18세기에서나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25)의 경우들의 '-게 흐엿-'이 '-게 되어 잇-'의 의미를 떼어 되어 이것이 '-겠-'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기보다 (26)와 같이 '되-'의 의미를 가지던 '흐-'가 '-게 흐엿-'의 구성을 통해 현대국어 '-겠-'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결론이 나온다.

여러 자료에 드러난 양상으로 보아 '-게 흐엿-'은 그 변화 과정에서 모음의 탈락이라는 음운론적인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게엿-'의 단계를 거쳐 19세기 중엽 이후에는 '-겟-'으로 완전히 문법범주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 4

먼저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흔히 ‘어휘적 의미를 가지고 있던 실사류가 문법적 의미를 가지는 허사류로 바뀌는 사적 변화’로 정의되는 문법화는 그 개념을 너무 협소하게 파악한 것으로 문법화에는 ‘어휘형태소>문법형태소’의 단계 이외에도 범주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생긴 경우, 어휘적 의미를 가지고 있던 실사류가 아직 허사류로 바뀌지 않은 경우,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던 허사류가 문법성을 상실하는 경우 등에 대한 考察이 더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3)의 도식으로 결과되었으며 이는 문법화가 본질적으로 통시성을 고려한 개념이고 그것은 언어의 점진적 변화를 전제한다는 가정에서 도출된 것이다.

② 이렇게 확대된 문법화의 개념을 근대국어와 관련하여 문법형태화에서는 먼저 ‘어휘형태소>어휘형태소’의 경우를 ‘노릇’을 들어 살펴보았다. ‘노릇’은 ‘구실’의 의미 이외에도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뜻 밖에 벌어진 ‘일’이나 ‘현상’”의 의미로 ‘한심한 노릇’, ‘기가 찰 노릇’ 등의 쓰임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 하였는데 이러한 추상적인 의미는 ‘노릇’이 점차 의존명사로서의 지위를 획득해 가고 있다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

③ 다음으로 ‘어휘형태소>문법형태소’의 경우는 현대국어 의존명사 ‘리’와 보조사 ‘조차’의 경우를 들어 살펴보았다. 전자는 중세국어단계에서 18세기까지 자립명사로서의 용법을 보이고 있던 것이 의존명사로 발달한 경우이고 후자는 중세국어단계에서 동사의 모습을 보이던 것이 보조사로 문법형태화한 경우이다.

④ 마지막으로 ‘문법형태소>문법형태소’의 경우는 현대국어 의존명사 ‘줄’의 경우를 들어 살펴보았다. 현대국어에서 의존명사로 간주된다는 사실에서는 ‘리’와 유사하지만 ‘리’와는 달리 ‘줄’은 중세국어에서도 의존명사로 간주된다는 점과 현대국어와는 달리 그 의미가 ‘것’으로도 판단된다는 점을 통해 문법형태화에 ‘어휘형태소>어휘형태소’, ‘어휘형태소>문법형태소’ 이외에 ‘문법형태소>문법형태소’와 같은 단계가 따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⑤ 한편 문법범주화에서는 ‘-어 잇-’과 ‘-게 흐엿-’을 들어 이들이 현대국어의

‘-었-’과 ‘-겠-’이라는 새로운 문법범주를 형성시켰으며 이것은 범주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문제임을 밝혔다. 그 과정에서 ‘-게 흐엿-’의 ‘-겠-’으로의 문법 범주화는 사동구성이 ‘되-’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되-’의 의미를 가지는 ‘흐-’가 ‘-겠-’으로의 문법범주화에 참여한 것이라는 본고의 가정을 제시해 보았다.

이상의 결론을 발판으로 하면 기존의 논의에서는 별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던 여러 예들이 문법화라는 기체를 통해 설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가령 본고의 관점대로라면 ‘들’의 경우도 문법화 (3③)의 대상이 된다. 본론에서 살펴본 ‘줄’과는 달리 ‘들’은 중세국어 단계에서는 의존명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대국어에서는 보조사로 파악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예라고 할 수 있다.

- (28) 한가 我와 人과 둘 相이 이시면(若有我人等相한면)<圓覺下 3-1:133>  
 論과 悟와 둘히 다 眞實へ 根源에 소모차(論悟等이 眞<sup>한</sup>야 徹於眞源す  
 야)<圓覺下 3-1:34>  
 惑은 煩惱니 널오더 貪과 質과 癡 둘히라<圓覺下 3-1:61>  
 cf. 그 저괴 𠙴下 1며 百姓들 一千 나문 사르미 出家<sup>한</sup>고<月釋6:18>
- (29) 쏘 갈해 헐며 도치에 버흔 둘했 瘡을 고토더(又方治刀傷斧折等瘡)<救謹  
 1:82>  
 cf. 自中은 조갓넷 中이라<月釋1:40>

(28)은 중세국어 단계에 ‘둘<sup>한</sup>’이 명사적인 것으로 파악되는 예이다. 현대국어에서는 ‘들’이 ‘과’나 ‘와’와 통합하는 일이 없다. 참고에서 제시한 예는 ‘둘<sup>한</sup>’이 ‘百姓’과만 연관된다는 것을 보인 것으로 이러한 예의 ‘둘<sup>한</sup>’은 선행 요소 전체와 통합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28)의 다른 예들의 ‘둘<sup>한</sup>’과 구별이 가능하다. (29)는 ‘둘<sup>한</sup>’이 관형구성에 참여한 것인데 이러한 구성은 현대국어에서 가능하지 않고 더욱이 참고에서 보인 ‘둘<sup>한</sup>’의 존칭형 ‘내’의 경우는 속격조사와 통합되어 있으므로 ‘둘<sup>한</sup>’이 명사적인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하나의 방증으로 간주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둘<sup>한</sup>’의 경우만을 들어 보였으나 이와 같은 것들의 근대국어 단계의 모습을 밝히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이다.

한편 본고에서 통시적 변화의 기제로 든 문법화는 언어가 점진적인 변화를 보이지만 그 변화는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그 나름의 규칙을 가진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문법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그 동안 제시된 여러 가설을 통해 '-겠-'의 문제를 바라보고자 한 것이 본고의 한 목표였다. 물론 문법화가 언어의 변화를 전부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순수히 공시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을 통시적인 시각으로 설명하게 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법화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흥미로운 분야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 '-hood'에 대해 '-의' 의미를 인정한 바 있기 때문에 이 '-hood'와 관련된 것을 하나 더 들어 본고에서 의미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강조하는 것으로 본고의 논의를 마치기로 한다.

(30) 열둘호고 닐웨 기타 겨샀다 旱시고<月釋2:13>

하ಥ 들에 三百六十五 度호고 쪼 度를 네해 눈호아 旱나하니<楞嚴6:16>

입호고 코는 어이 무음일 조추서 후루룩 벗쭉旱누니<青丘108>

(30)의 '호고'는 이미 중세국어 단계에 조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발견되는 '호고'의 의미를 중세국어 단계의 '-hood'에서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의 논의를 따르다면 (30)을 포함한 앞으로의 논의는 이를 우선 전술한 '부터'나 '조차'와 동궤의 사실로 간주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는 곧 중세국어 단계나 그 이전 단계에서 '-hood'가 (30)에서 보이는 '호고'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으로 발전하게 된다. 즉 (30)에서 보이는 조사 '호고'를 문법화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hood'가 가지는 여러 의미 가운데서 이를 발견하고자 하는 과정을 따른다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식의 논의가 본고의 문법범주화에서 보이고자 했던 것이며 이를 '-게 旱엿-'에서 '-겟-'으로의 문법범주화를 통해 보이고자 하였다.

## 참고문헌

- 高永根(1989), 『國語形態論研究』, 서울대출판부.
- 김완진(1982), <고대국어의 모음조화에 대한 일고찰>, 『白影 鄭炳昱先生 還甲紀念論叢』, 신구문화사.
- 김완진(1986), <신라 향가의 어학적 분석>, 『전통과 사상』(I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일근(1988), 『增訂 연간의 연구－한글서간의 연구와 자료집성』, 건국대학교출판부.
- 김진형(1995), <중세국어 보조사에 대한 연구－목록 설정을 중심으로>, 『國語研究』 136.
- 나진석(1971), 『우리말의 때매김 연구』, 과학사.
- 박진호(1994), <중세국어의 피동적 '-어 잇-' 구문>, 『주시경학보』 13, 탑출판사.
- 안주호(1996), <명사 과생의 문법화 연구>, 『語學研究』 32-1.
- 王汝鎔(1987), <後期 近代國語의 依存名詞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劉昌惇(1964), 『虛辭化考究』, 『人文科學』 7.
- 이기갑(1987), <미정의 씨끌 '-으리'와 '겠-'의 역사적 교체>, 『말』 12, 연세대학 교 한국어학당.
- 이병기(1997), <미래 시제 형태의 통시적 연구－'‐리‐', '‐ㄹ 것이‐', '‐겠‐'을 중심 으로>, 『國語研究』 146.
- 李承旭(1997), 『國語形態史研究』, 太學社.
- 李承旭(1981), <副動詞의 虛辭化>, 『震檀學報』 51.
- 李丞宰(1992), 『高麗時代의 史讀』, 太學社.
- 李周行(1988), 『韓國語 依存名詞의 通時的 研究』, 한샘.
- 李智涼(1993), <國語의 融合現象과 融合形式>,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태영(1988), 『국어 동사의 문법화 연구』, 한신문화사.
- 李賢熙(1991), <국어문법사 기술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 『국어사 논의에 있어 서의 몇 가지 문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 李賢熙(1994), 『中世國語 構文研究』, 新丘文化社.
- 임동훈(1996), <'‐겠‐'의 문법화>, 국립 국어 연구원 5월 월례 발표회 발표요지.
- 전상범(1995), 『형태론』, 한신문화사.
- 崔東柱(1995), <國語 時相體系의 通時的 變化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언어학

과 박사학위논문.

- 최형용(1997), <형식명사·보조사·접미사의 상관관계>, 『國語研究』 148.
- 韓東完(1986), <過去時制 ‘엇’의 通時論의 考察>, 『國語學』 15.
- 허 응(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허 응(1987), 『국어 때마김법의 변천사』, 샘문화사.
- 허 응(1989), 『16세기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홍윤표·송기중·정광·송철의(1995), 『17세기 국어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Bybee, J.(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Bybee, J., R. Perkins & W. Pagliuca(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pper, P. J. & E. C. Traugott(1993),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